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선정

전남관광재단 공모사업 최종 선정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치유 융합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이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불복리에 들어선 '스마트 치유마을'이 최근 전남관광재단 주관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공모 사업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을 대표하는 힐링·건강 여행지를 발굴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공모에는 관광지 15곳이 응

모해 적합성, 차별성,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실적, 관광상품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여가·문화·공동체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 스마트 치유센터와 숲속 시설인 힐링 하우스 2동으로 구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VR 체험존, AI 로봇 바리스타, 맥반석 스파, 다크저실, 특산품 판매 시설 등이 있다.

전남관광재단은 전문가들이 참여 한 가운데 웰니스 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트 치유마을이 완도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관광객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등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원도=이두식 기자

장성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장성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등을 거쳐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공시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9.24% 가량 상승했다. 첨단지구 개발 등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이달 30일까지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서도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386)로 연락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장성=김현숙 기자

광양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G.피움 시즌3' 운영

공연예술 등 5개분야... 오는 24일까지 수강생 모집

광양시가 오는 6월부터 문화예술 교육 인력양성을 위한 G.피움(광양을 피우다) 시즌3를 운영한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지난 9일~24 일 오후 1시까지이며, 모집인원은 5 개 분야(공연예술, 시각예술, 공예, 문학, 기타) 4명씩 최대 20명이다. 참여대상은 문화예술교육을 준비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예비)문화예술기획자, 예술가, 예술 강사, 문화 활동가나 문화예술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동안 G.피움 시즌1·2를 통해 여성, 청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G.피움 시즌3은 문화예술교육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들이 주제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한다.

운영방식은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회차별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강의와 멘토링뿐

만 아니라 선진지 답사와 광양읍 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현장 조사 등 이론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병행한다.

교육과정은 6~9월 매주 목요일, 총 12회로 운영하며, 텁별로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활동비와 운영비도 지원된다. 신청서는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 이메일(gyc2022@hanmail.net)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gwangyanggo.kr)나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061-761-0701)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광양=조준의 기자

신안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환경 조성 박차

노후된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사업 '착착'

신안군은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가 극심하고 상·하수도 관로 매설 등으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마을 안길에 대하여 금년도 아스콘 포장 사업을 지난 4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사업은 총 320개 마을 315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49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0년도에는 압해읍 등 6개 읍·면 25개 마을 29km 구간에 대하여 3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했으

며, 올해에는 지도읍 등 13개 읍·면 65개 마을 53km 구간을 대상으로 50 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했다.

나머지 230개 마을 233km 구간에 대하여는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413억 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노후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사업은 대부분 1970년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로 파손 및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마을을 안길을 정비하여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 환경 조성 등으로 농촌 마을의 미관개선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신안군은 "올해 많은 마을을 정비하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앞으로 미정비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해 교통 약자의 편의성·접근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광양시, 폐기물처리업체

상반기 특별지도·점검

광양시는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특별지도·점검을 11일부터 4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

폐기물처리업체 중 민원이 빈발하거나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규 허가업체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작년에 국비를 지원 받아 구입한 최첨단 환경감시용 드론을 이용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사항의 일치, 보관기준 준수·적법 처리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며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업체 운영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 발생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시는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시민이 폐기물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대기질 개선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중질유 사용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청정연료 사용 시설로 전환

순천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기C유 등 중질유를 사용하는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을 LNG·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유류 보일러에서 청정연료 보일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 내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이 해당된다. 다만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이나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내부심의 등을 거쳐 선정 업체 1곳당 규격·용량에 따라 최대 1억

8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6 월 3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순천시 생태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조준의 기자

곡성세계장미축제장 내 '한복문화거리' 조성

오는 21일부터 개최되는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 '곡성·한복을 입다'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한복 문화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곡성군은 섬진강기차마을 정문 입구 저잣거리 일대를 한복 문화 거리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이번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한복 문화 거리에서는 21일부터 6 월 26일까지 한복전시회, 한복 무료 대여소, 한복 전통놀이 체험관 등 다양한 한복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한복 전시회에서는 한복의 우수성과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한복 시대를 느끼다'라는 주제로 시대별 저고리, 속곳, 철릭 원피스



등 전통 한복에서부터 신한복까지의 변천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대표 한복 명장으로 알려진 광주대학교 안명숙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품격 높은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곡성=이상석 기자

순천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선정

국비 3억원 확보... 창업 생태계 기초 데이터 구축

순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뉴딜 사업인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현황, 복합 공간 및 구인구직 정보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생태계 기초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집 데이터는 ▲순천시 사업체 ▲순천시 분류별 사업체 현황 ▲순천시 창업 복합 공간 ▲순천시 구인구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다. 시는 주로 광역단위로 조사되고 있는 데이터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의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제공한다.

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데이터 공급기업과 협약을 통한 매칭으로 공공데이터 구축에 나서 올해 말까지 창업생태계 DB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 예정자들은 순천시의 사업체 현황 등 창업 기초 데이터에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개선 가속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데이터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며 "스타트업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및 개방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준의 기자

여수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19일~20일 온라인 신청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로 순위에 따라 76명을 선발한다.

일반대상자와 외곽근무자는 모집 인원 초과 시 공개주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단, 더 많은 대학생에게 행정인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 참여자는 제외된다.

행정인턴으로 선발된 학생은 대학 전공 등을 고려해 시청,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우체국, 세무서 등 공공기관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돼 한 달 간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7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한다. 보수는 여수시생활임금을 적용해 1 일 7만원을 지급하며, 1달 만근 시 1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수=조일상 기자

진도 '가가호호 치매환자 쉼터' 운영

주 1회 가정 직접 방문... 1:1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진도군이 코로나19로 지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치매 환자 쉼터를 오는 5월까지 운영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 활동이 어려워 있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프로그램은 치매예방운동, 퍼즐 및 추기 등의 작업치료, 천연 한방 샤푸 만들기 등의 공동 치료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총 8회에 걸쳐 제공한다.

가가호호 치매환자 쉼터 1:1 방문 프로그램은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돋우고,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가가호



호 치매환자 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영암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본격 추진

농가 인력난 해소 기대

소에서는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농촌 인력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특별히 고령농, 영세농, 장애인 농가 등 일손 취약 농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1실·과·소·읍·면당 1농가' 지원을 목표로 농촌일손돕기를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일손돕기를 신청한 단감 재배 농가는 "인건비는 너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별따기인 요즘 영암군 공무원, 농협 직원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농작업에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고령화, 부녀화로 일손 부족하여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암=김형우 기자